

# 스페인·이탈리아 ‘과잉관광’ 반대시위…한국 관광객도 봉변

### ‘물총 날벼락’ 한국인 “동물처럼 취급…잘못된 행동” 주택위기 심화 등에 관광객 향한 현지인 반감 커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서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이날 600명의 시위대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고급 브랜드 매장과 호텔이 늘어난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거리에서 마주친 관광객들과 상점 유리창을 향해 물총을 쏘고, 호텔 앞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시위대의 물총을 맞은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신들의 휴가는 나의 고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중심가를 지난 시위대의 행진은 바르셀로나의 대표 건축물 성가정 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경찰에 차단됐다. 스페인의 다른 관광지인 이비사와 말라가, 마요르카, 그라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 마요르카에서는 시위대가 관광버스를 멈추

세우고 조명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와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팔레르모 등에서 시위가 열렸다. 제노바의 시위대는 시내 돌길에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며 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관광객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측은 “현재 관광 모델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 위기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대상으로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거주지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인구가 160만 명이지만, 지난해 관광객 수는 2천600만 명에 달한다. 관광객 수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위대의 주장이다. 앞서 바르셀로나는 오는 2028년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임대를 전면 금지하겠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시내 중심가에서 관광객과 상점을 향해 물총을 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고 밝혔다. 베네치아는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에 대한 입장료를 도입했고, 그리스 산토리니와 벨기에 브뤼허도 규제를 도입했다. 올해 유럽에서 관광객들의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8천300억 달러(약 1천14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스페인에서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연합뉴스

## 세계 곳곳서 열기구 추락사고…인명피해 속출

튀르키예서 1명 숨지고 19명 다쳐  
브라질서도 1명 사망·10명 부상

인기 관광상품인 열기구 관광 도중 추락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州)에서 관광객 35명을 태운 열기구가 추락,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군과 경찰이 발표했다. 현지 언론은 사고가 난 열기구가 무연히 상태였으며, 열기구 조종사는 사고 직후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튀르키예 중부 악사라이주에서도 열기구 추락 사고가 발생, 조종사 1명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관광객 19명이 다쳤다고 미국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돌풍이 지목되고 있다. 갑자기 바뀐 바람에 열기구는 인근 마을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튀르키예 중부 지역은 기암괴석 지대로 유명한 ‘카파도키아’ 관광지가 있으며, 열기구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2022년에도 스페인 관광객 2명이 카파도키아 관광 도중 열기구 추락으로 사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도 서부서 철제 교량 붕괴  
최소 2명 사망·32명 부상

인도 서부에서 100m 길이 철제 교량이 붕괴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 콘드말라 지역에서 인드라야 니강에 건설된 철교가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주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부상자 중 6명 이상은 중태다. 현지 매체는 붕괴 당시 관광객 등 수십명이 다리 위에 있었고, 다수가 강물에 빠졌다고 전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물에 빠진 일부가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강물이 불어난 상태였으나, 사고당시 비는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 영국 군정보기관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6천명 이상 사상”

전체 절반 넘게 죽거나 다쳐  
“대규모 도보 돌격전 주원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 수가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영국 군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일일 보고서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작전을 벌인 북한군의 사상자가 6천명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DI는 “이런 전체 사상자 수는 쿠르스크에 배치된 약 1만1천명의 북한군 병력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출처 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 제한적 숫자의 병력을 쿠르스크에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북한군의 큰 사상률은 매우 소모적인 대규모 도보(徒步) 돌격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DI는 이달 4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대해 “쇼이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해 핵심교섭담당

지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도 내놨다. 아울러, DI는 “지금까지 북한의 작전은 쿠르스크에 국한됐다”며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에 배치돼 러시아군을 돕는다는 어떠한 결정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DI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DI는 통상 사실일 확률이 80-90%로 평가되는 사안을 전할 때 ‘가능성이 매우 크다’(highly likely), 95-100%인 사안일 때 ‘거의 확실하다’(almost certain)는 표현을 쓴다. /연합뉴스

## 페루 중부 해안서 규모 5.6 지진…1명 사망·5명 부상

15일(현지시간) 페루 중부 해안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35분께 발생했으며 진앙지는 수도 리마 서쪽에 있는 해

안도시 카야오로부터 남서쪽으로 23km 지점이다. 이번 지진으로 리마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나왔다. 경찰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리마 북부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4층 벽이 떨어져 차량 밖에서 승

객을 기다리던 한 36세 남성이 이를 머리에 맞으면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와 건물 파손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페루 국가비상대책센터(COEN)는 도로와 교육 기관 등이 손상을 봤다고 밝혔다. 페루는 대륙판 간 충돌이 잦은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